

## 〈황현전〉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조혜진\* · 박재연\*\*

### 차 례

- |         |                      |
|---------|----------------------|
| 1. 서론   | 3. 서사적 특징            |
| 2. 자료소개 | 1) 설화 및 무가 화소의 삼입    |
| 1) 이본대비 | 2) 여성영웅소설의 열녀복수서사 수용 |
| 2) 내용소개 | 4. 결론                |

### 국문초록

본고는 <황현전>의 이본을 소개하고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황현전>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는 작품으로, 죽은 남편의 복수를 위하여 남장을 하고 전장에 출전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아단문고 소장본(1권 1책)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본(1권 1책)이 발굴되었다. 두 이본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선문대본은 국문체로, 아단문고본은 국한문체로 필사되어 있어 선문대본이 보다 전대의 표기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전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교신저자)

반부에는 황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가 서술되어 있으며, 후반부는 소군이 전장에 나가 죽은 남편의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전대 소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설화와 무가의 화소를 수용하여 다른 소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여성영웅이 등장하고 있으나, 열녀(烈女)로 표상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이 지니는 문제의식이 희석되고 있다.

주제어: 황현전, 영웅소설, 여성영웅소설, 열녀담, 복수담

## 1. 서론

<황현전>은 죽은 남편의 복수를 위하여 남장을 하고 전장에 출전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필사본 한글소설이다. 지금까지 아단문고 소장본(이하 아단문고본)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아단문고 장서목록』<sup>1)</sup>에서 서지사항이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서 새로운 <황현전> 이본(이하 선문대본)이 발굴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황현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그 내용 및 서사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이본 대비를 통하여 아단문고본과 선문대본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때 두 이본의 서지사항을 살펴보고 표기 및 내용상의 동이(同異)를 분석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황현전>의 서사적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 작품은 전대의 영웅소설 및 여성영웅소설과 서사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나 두 장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르관습이 변용되는 양상이 나타

1) 아단문고 편, 『아단문고 장서목록』 II, 아단문화기획실, 1996, 472면.

난다.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현전>의 소설사적 위치를 가늠하는 동시에 여성영웅소설의 한 가지 양상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 2. 자료소개

### 1) 이본대비



그림1 아단문고본 <황현전>



그림2 선문대본 <황현전>

아단문고본 <황현전>은 필사본으로 1권 1책이지만 마지막 면이 손상된 낙질이다. 개장이 이루어져 있으나 원래 표지가 절반 정도 잘려나가 표제를 확인할 수 없으며, 권수제는 ‘黃賢傳’으로 되어 있다. 책 크기는 29.5×21.5cm로 총 35장이며 매면 12행 31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sup>2)</sup> 마지막 면이 존재하지 않아서 필사기의 유무를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글씨체가 비슷하여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문대본 <황현전>도 필사본으로 1권 1책의 완질이다. 표제는 ‘황현전’이고 권수제는 ‘황현전’으로 표지가 개장되어 있다. 책 크기는 30.5×20cm로 총 46장이며 매면 10행 23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책 끝에 “임술 십이월 초五日 필ᄃ노라”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책의 상태로 미루어본다면 필사기의 ‘임술’은 1922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글씨체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필사자는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아단문고본과 선문대본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다만 자구의 출입이 약간 나타난다.

(아단문고본) 이튿날 胡王伊 陣門 박기 ㄴ셔며 외여 曰, “나는 關內乙 직히고 牙將만 보너엿더니 不幸爲여 너 將帥 三人乙 죽엿스니 今日은 결단코 너희乙 버혀 牙將의 溫수乙 잡고 卽時 玉璽乙 차지리라.” ᄃ며 𑖇흠乙 挑 〃 거날 잇찌 龍女 虎女 다려 曰, “그딤 胡王의 凶計乙 아나요?” 虎女 答曰, “月寺谷의 伏兵한 줄 웃지이 알이요?” ᄃ니 龍女 又語 曰, “至今 盜賊而 西川 물乙 막고 月寺谷의 伏兵ᄃ여 西川 물밧티 합井 파난 줄乙 웃지 모로리요?” (32a~32b면)

(선문대본) 이튿날 胡왕이 진문 ㅂ기 ㄴ셔며 외여 왓, “ㄴ는 靑乙을 직히고 아장만 보너엿더니 불ᄃᄃ여 너 장수 습인을 죽엿스니 금일은 결단코 너희을 버혀 아장의 溫수를 잡고 직시 옥식을 차지리라.” ᄃ며 𑖇흠을 도 〃 거날 잇딤 용녀더러 왓, “그딤 胡왕의 흉계을 아나요?” 용녀 답왓, “월스곡의 복병함을 웃지 알니요?” ᄃ니 용녀 왓, “직금 도적이 서

2) 아단문고 편, 앞의 책, 472면.

천 물까히 함정을 찢는 줄을 웃지 모르리요?” (41b면)

인용한 부분은 호왕의 계략에 대하여 용녀와 호녀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다. 아단문고본에는 용녀가 호녀에게 질문하고 호녀가 대답하는 내용인데 반해, 선문대본에는 질문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용녀가 혼자 대답하기 때문에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와 같은 자구의 출입을 제외하면 두 이본의 내용상 차이점이 거의 없는 동일계열의 이본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아단문고본에는 마지막 면이 탈락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주인공의 후일담이 생략되어 있다.

두 이본은 가장 큰 차이는 표기에서 나타난다. 아단문고본은 대부분의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국한문체를 쓰는 데 반해 선문대본은 필사기의 “五日”을 제외하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적는 순국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고전소설에서 국문과 한문을 혼용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당대 국문과 한문이 철저히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두 언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텍스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894년 11월 21일 모든 법률과 칙령을 기본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칙령 제1호가 나오고, 1895년에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이 간행된 이후 국한문혼용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sup>3)</sup> 따라서 두 이본의 선후는 정확히 판별할 수 없으나 선문대본이 보다 전대(前代)의 표기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문대본에서 아래아(·)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이것을 방증한다.

아단문고본에서 국한문체가 사용되는 것은 <황주문생록> 등 20세기 초반에 필사된 소설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sup>4)</sup> 그런데 아단문고본은 조사와 ‘하다’를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伊, 而),

3) 정병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일고: 심신우언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문화』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6면.

4) 고은임, 『<황주문생록>의 서사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67, 한국문화회, 1994, 142면.

을(乙), 로(奴), 하고(爲古), 하시고(爲時古), 하시니(爲時尼) 등을 한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확한 한자와 부정확한 한자가 혼재되어 있다. 화려(華麗)를 “闊如(3b)”로, 연석(宴席)을 “燕席(4a)”으로 표기하는 등 문맥과 맞지 않은 한자가 음차되어 사용된 경우가 있으며, 조야(朝野)를 “조野(1a)”로, 장중보옥(掌中寶玉)을 “掌中보玉(1b)”으로, 불민(不敏)을 “不민(2b)”으로 표기하는 등 어려운 한자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필사자는 한자 표기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인물일 것이다.

요컨대 아단문고본과 선문대본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일계열의 이본으로 보인다. 두 이본의 정확한 선후관계를 판별할 수는 없으나 선문대본이 보다 전대의 표기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단문고본은 마지막 면이 손상되어 생략된 부분이 있으므로 선문대본을 주요 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아단문고본을 참고하고자 한다.

## 2) 내용소개

<황현전>은 황현이 오랑캐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전장에 나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후, 그의 아내 이소군이 남장을 하고 전장에 나가 남편의 원수를 물리치고 부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되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본 간의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선문대본을 중심으로 <황현전>의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명나라 승상 황사석은 간신의 참소로 낙향하였는데 오십이 넘도록 혈육이 없었다. 그의 부인 왕씨가 옥임산 화주승에게 시주를 한 후, 황현이라는 아들을 얻는다.
- ② 황승상이 세상을 떠나고 황현은 부친의 친우인 이승상에게 글을 배운다. 이승상은 황현을 외동딸 소군과 혼인시키고자 하지만 왕부인

은 거절한다. 이에 이승상은 황현을 포함한 사위 후보와 그들의 모친을 불러 잔치를 연다. 잔치에 참석한 왕부인은 결국 황현과 소군의 혼인을 승낙하고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른다. 그런데 사위 후보였던 김생이 득병하고 소군에게 저주를 내리고 세상을 떠난다.

- ③ 황현은 노모를 모시기 위하여 관직을 사양하지만 서촉(西蜀)에서 반란이 일어나 명군이 대패하게 되자 황현이 대장으로 임명된다.
- ④ 가족과 이별하고 서촉으로 향한 황현은 전장에서 적군에게 연승을 거둔다. 왕부인은 아들을 걱정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이를 알아차린 황현은 귀향을 서두르다 적군의 급습을 당하여 적장 굴통이 쏜 화살을 팔과 가슴에 맞는다. 그는 옷소매에 편지를 적어서 타고 있던 말의 갈기에 매달고 죽음을 맞이한다.
- ⑤ 황현의 말은 발굽으로 땅을 파서 시신을 바위 밑에 묻고 집으로 돌아온다. 편지를 확인한 소군은 황현을 죽인 화살을 찾아내어 이 화살로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한다.
- ⑥ 황제는 황현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직접 전장으로 나서고 천재지변 덕분에 적군에게 대승을 거둔다. 황제는 황현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월광대사에게 수륙재(水陸齋)를 거행하라고 명한다. 대사는 꿈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만지는 한 장수를 만나고 바위 밑에서 황현의 시신을 찾아낸다. 대사가 시신을 수습하여 황성으로 향하려던 차 황현이 다시 꿈에 나타나 시신을 옮기지 말라고 부탁한다. 이 사연을 들은 황제는 그 바위에 충효비를 세우게 한다.
- ⑦ 소군은 남장을 한 채 남편의 말을 타고 서촉으로 향한다. 도중에 도적을 만나지만 말이 도적을 죽여서 위기를 모면하고, 엄승상 댁에서 말도둑으로 몰리지만 황현의 아들이라고 말하여 오해를 푼다. 엄승상이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자 소군은 자수로 사정을 수놓아놓고 떠난다.
- ⑧ 소군은 전장에 도착하여 말의 도움으로 황현의 백골을 찾아 제사지

- 낸다. 이후 소군은 후토부인의 인도로 부처를 알현하고 남편의 복수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에 부처는 병서를 내어주고 법술을 알려준다.
- ⑨ 소군은 황현의 시신을 안장하고 원수를 갚기 위하여 전장으로 향한다. 호녀, 용녀와 일행이 된 소군은 황제를 구하기 위하여 항하성으로 간다. 소군은 호군에게 대승을 거두고 호왕과 굴통을 결박하여 명진(明陣)으로 돌아온다. 소군은 남복(男服)을 벗고 굴통을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는다.
- ⑩ 고향으로 돌아가던 소군은 옥임산에서 부처에게 꽃과 부적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황현을 되살린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황현을 승상에 제수하고 부부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승천한다.

이처럼 <황현전>은 남성주인공의 출전을 다룬 전반부와 여성주인공의 활약을 다룬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에는 황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가 서술되어 있다. 전승상 황사석은 간신의 참소로 인하여 낙향한 후 기자치성을 통해 황현이라는 아들을 얻는다. 황현은 부친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부친의 친우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후 오랑개가 침입하여 전장에 나가지만 적장의 화살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작품의 전반부는 영웅의 일생 구조와 흡사하다.<sup>5)</sup> 그러나 1차 위기가 미약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2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웅의 일생 구조와 차이를 보인다. 작품의 후반부는 이소군이 남편을 죽인 오랑개 장수를 물리치는 복수담이다. 이소군은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되어 그의 백골을 수습하고, 남장을 하고 전장에 나아가 남편의 원수를 물리친다.

5) 조동일은 영웅의 일생을 'A.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B.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C.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 D.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E. 구출·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F.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G.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의 7 단락으로 정리한 바 있다(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9면).



이후 황제에게 자신을 정체를 밝히고 나서 부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되살린다. 이소군은 남장을 하고 출전하여 승리를 거둔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후반부의 서사구조는 여성영웅의 입신양명과 혼사장애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유사하다.<sup>6)</sup> 그러나 입신양명의 계기와 혼사장애의 원인이 모두 남편의 죽음에 있다는 점은 다른 여성영웅소설과 다소 차이가 난다.<sup>7)</sup>

요컨대 <황현전>에는 황현의 죽음을 중심으로 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가 결합되어 있으나 두 장르의 장르관습에서 벗어나는 독특한 면모가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양상을 3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6)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이견(異見)이 있으나 대체로 여성영웅의 입신양명서사와 혼사장애서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학회, 1996, 390면).

7) 최지녀는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가) 고귀한 혈통의 무남독녀로 출생한다 (나) 부친의 적거 및 늑혼의 시련을 겪는다 (다) 남장 가출한다 (라) 조력자를 만나 병법과 무예를 수련한다 (마)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오른다 (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다 (사) 원수를 처결하고 가족과 재회한다 (아) 여성(공주)과 정혼한다 (자) 천자에게 본적을 상소한다 (차) 정혼자와 혼인한다 (카) 남편과 갈등을 겪는다 (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다 (파) 부귀다자녀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로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카), (타), (파)는 본적 상소와 혼인 이후에도 서사가 계속 전개되는 <홍계월전>, <정수경전>,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 등의 작품에 해당된다(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5, 35~36면). (가)~(차) 단락과 비교하여 본다면 <황현전>에는 (가), (라), (마), (바), (사), (자) 단락이 나타나고, (나) 단락이 나타나지 않으며 (다), (아), (차) 단락이 변경되어 나타난다. 이는 입신양명과 혼사장애가 모두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3장 2절에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3. 서사적 특징

#### 1) 설화 및 무가 화소의 삽입

<황현전>에는 ‘황현’이라는 인물의 영웅적 일대기가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기자치성, 조실부친, 외적의 침입 등 영웅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화소가 출현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영웅소설의 핵심적 화소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화소가 삽입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황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황현전>에 삽입된 특징적인 화소의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어린 시절 부친을 여윈 황현은 모친 왕부인의 명으로 부친의 친우인 이승상에게 글을 배운다. 이승상은 황현을 친자식 같이 사랑하여 자신의 무남독녀 소군의 배필로 삼고자 한다. 이는 영웅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설정으로, 대표적인 영웅소설인 <유충렬전>에서도 동일한 설정이 등장한다. 유충렬이 부친 유심의 친우인 강희주의 무남독녀와 정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상이 왕부인에게 매자(媒子)를 보내어 구혼을 하자 왕부인은 빈한한 집안과 불민한 자식을 핑계 삼아 구혼을 거절한다. 이승상이 그녀의 지감(知鑑)을 칭찬하며 재차 매자를 보내나 왕부인은 한번 더 거절한다. 이는 <사씨남정기>의 중매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승상은 <사씨남정기>의 유소사처럼 매자를 변경하여 다시 구혼하지 않고, 사위후보를 불러서 대연(大宴)을 베푼다. 이른바 택서잔치를 여는 것이다.

잇썩 시랑 벼살흐는 김공의 아덜 김칭이 글도 잘흐고 덕행이 유여호고 화화(豪華)로운 집 즈제라. 마음도 허랑호고 츠신(處身)도 허호호니 승상이 마닷이 여겨 청혼코져 호시니 뉴예미결(猶豫未決)호시더라. 또 상셔 벼살흐는 뉴공의 즈식이 잇시니 명은 은운이요 노는 십팔세라. 풍치는 늻” 호고 문필리 유여호는 마음이 허랑호여 구혼호되 할 곳지 다 맛당치 못호고 여아의 비필은 황현이로다. 왕씨부인의 즈식이 세상의

드문 스람이라. 즈식을 교훈을 잘히시고 학업을 심써 가르치고 쏘 너의 여식이 가인(佳人)〃 줄 알고 형세 유여히너 황싱이 너 스희 될 줄 알고 허흔치 안이히니 이제 습부인과 습신랑을 청히여 보고 정흔히리라 히시고 모다 청히여 디연(大宴)을 비설(排設)히더니<sup>8)</sup>

이승상은 김칭, 유은운, 황현이라는 세 명의 사위후보를 불러서 잔치를 연다. 결국 이승상은 황현을 택하며, 왕부인도 이소군을 만나서 혼인을 승낙한다. 이에 두 집안은 길일을 택하여 황현과 이소군의 혼례를 치른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윗감이 혼례를 갖 치른 신부에게 저주를 내린다.

잇썩 김싱이 병이 들러 광객(狂客)이 되어 승상덕의 와서 디문을 두 다리며 왈, “승상이 츠음의 날노 구흔히더니 너의 병세 이 갓튼니 만일 죽으면 소군을 너가 잡아갈리라.” 히니 승상이 그 일을 츠욱히 여겨 불안히더라. 잇디 김공이 와서 악을 씨고 간 후 십일 만의 죽은니라. 황싱이 〃 말을 듯고 탄왈, “김시랑도 다만 독즈을 두엇다가 날노 히여금 죽으니 이 갓튼 악식이 어디 잇시리요?” 치삼 탄식히더라.<sup>9)</sup>

김칭은 얼굴이 화려하나 심정이 허량한 인물로 택서잔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무를 즐겼기 때문에 이승상의 사위가 되지 못한다. 그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괴로움에 광증(狂症)이 일어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황현은 김칭의 죽음을 전해 듣고 자신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데 그의 말은 복선으로 작용한다. 이후 황현은 전장에서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어 화살에 관통된 채 목숨을 잃는데, 서사에서 황현의 횡사(橫死)와 김칭의 죽음 사이의 관련성이 밝혀진다. 황현의 시신을 수습한 소

8) 선문대본 <황현전> 5a~5b면. 이후 같은 작품을 인용할 경우 면수만 표기한다. 인용문의 띄어쓰기, 문장부호, 한자 병기, 강조 표시 등은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이하의 인용문도 동일함을 밝힌다.

9) 9b면.

군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구월산에서 잠시 쉬어간다. 이때 소군은 깜빡 잠이 드는데, 꿈에서 산신령을 만나게 된다. 산신령은 “향주의 황장군이 인간을 밟아 밟아 불칙한 김싱이 지부왕께 상소하여 황장군을 침범함”<sup>10)</sup>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김칭의 원한으로 인하여 황현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상사병에 걸린 인물의 저주로 목숨을 잃었다는 화소는 다른 영웅소설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설화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민속신앙에서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죽은 귀신은 강한 원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sup>11)</sup>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의 『송도인물지(松都人物志)』에는 황진이에 대한 일화로 상사병에 걸려죽은 서생 이야기가 실려 있다. 황진이가 열대여섯 살 무렵 이웃에 사는 서생이 그에게 연정을 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병을 얻어 죽었는데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나아가지 않았다가 그녀의 저고리를 덮어주자 비로소 관이 나아갔다.<sup>12)</sup> 이는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원한에 대한 향유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sup>13)</sup> 한편 애정이 거부된 사람의 원한이 묘사되는 대표적인 설화로 상사뱀 설화를 들 수 있다. 상사뱀 설화는 상사뱀 화소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상사뱀으로 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신주체의 성별에 따라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뉘는데, 남성형 상사뱀은 상대방의 몸에 밀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성형 상사뱀은 상사의 상대방이나 다른 인물의

10) 30a면.

11) 무라야마 지준, 김희경 역, 『조선의 귀신』, 동문선, 1990, 175면.

12) 김택영, 김승룡 역주, 『송도인물지』, 현대실학사, 2000, 203면.

13) 설화 <기생이 된 재상의 딸>과 민요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도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 및 ‘처녀의 저고리를 총각의 상여에 덮어줌’이라는 동일한 화소를 공유하고 있다(박선, 『황진이 설화의 전개와 소설적 변용』,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9, 36면; 서영숙, 『서사민요와 서사무가의 거리: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과 <치원대 양산보>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1, 5면 참고). 이와 같은 화소가 여러 계층의 향유자들의 공감을 얻어 넓은 지역에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sup>14)</sup> <황현전>에서 김칭은 직접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왕에게 상소하여 원한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애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원한이 다른 인물의 죽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여성형 상사뱀의 대응방식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칭의 원한으로 죽음을 맞게 된 황현은 자신의 유서를 집으로 전달하라는 유언을 말에게 남긴다. 이에 말은 발굽으로 흙을 파서 바위 밑에 주인의 시신을 묻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이소군에게 유서를 전한다. 또한 말은 이소군을 태우고 다시 서쪽으로 향하여 그녀에게 시신의 위치를 알려 준다.

낭지 낭군을 싱각하고 슬피 통곡하며 잠간 쉬더니 말리 굽을 치며 고기를 흔들고 동편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르거늘 낭조 고히 여겨 말더러 경계 왈, “인마역동(人馬亦同)이라 이제 너는 낭군의 죽을 곳절 알연이와 너는 낭군의 몽스(夢事)와 편지만 보고 정처읍시 빅골을 츠지러 왔시니 무슈흔 빅골의 낭군의 빅골을 분별하리요? 모로미 너는 낭군의 죽을 곳절 갈르치라.” 혼디 말리 이익키 듯다가 고기를 흔들며 동편의 혼 바회 밧절 가서 발노 쑥을 헛치거늘 낭지 일변 고히하고 일변 반가와 쑥을 파보니 과연 혼 빅골리 잇시되 스라노는 듯흐거늘<sup>15)</sup>

이소군이 전장에 도착하자 말은 동쪽을 보고 울부짖는다. 소군이 말에게 황현의 무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말은 바위 밑으로 가서 발굽으로 땅을 헤친다. 이에 이소군은 남편의 백골을 찾게 된다.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보검, 갑주, 용마를 획득하고 영웅으로 거듭난다. 이때 용마는 신성한 존재가 하사하는 것으로, 영웅을 표상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황현전>에 등장하는 말은 영웅소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용마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주인의 백골을 수습하도록 도와주고, 소

14) 강진옥, 『상사뱀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118~124면.

15) 23a~23b면.

군을 위협하는 도적을 물리치는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지만,<sup>16)</sup> 신성한 존재가 내려준 신이한 동물은 아니다.<sup>17)</sup>

오히려 황현의 말은 설화 <말무덤 전설>에 나타나는 말과 유사하다. 이 설화는 전쟁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은 장수와 관련되어 있다. 임진왜란에서 장수가 전사하자 말이 주인의 시신을 물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후 말은 피눈물을 흘리며 급사하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자살한다. 전설에서는 말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말무덤을 만들어주었으며, 이것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말한다.<sup>18)</sup> 주인의 시신을 직접 운반하는 설화의 말과 달리 황현의 말은 주인을 가매장한 장소를 알려주지만 주인의 시신에 제자리를 찾아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죽은 황현이 부활하는 장면에서는 무가의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적장 굴통을 처치한 소군은 황제에게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옥임산을 지나다가 부처와 재회한다. 부처는 그녀에게 꽃 세 송이와 부적 한 장을 하사하는데, 이는 황현을

16) 문득 숲풀 속으로서 도적 오륙인이 칼을 들고 너다려 낭즈를 잡아 너리치고 말을 아시며 낭즈를 쟁기라 흥겨늘 낭즈 비러 왈, “말은 가져갈지라도 스람은 헛치 마르쇼셔.” 이걸하니 그 중의 늘근 도적이 말녀 왈, “그 경상이 치근흔지라 죽인덜 무어세 이웁헐리요?” 흥고 급히 가 몸을 숨을지어다 헛디 도적 등이 올히 여져 말을 가지고 의〃 흥 산중으로 드러가거늘 낭즈 말을 일코 실패 탄식 왈, “이제는 낭군의 빅골을 찾지 못헐것도다. 말니 원정의 보형으로 웃지 갈리요? 이곳의서 즈결하여 지흥의 가서 만늬불리라.” 흥고 흥장을 의지하여 즈결코 즈 흥더니 맛춤 바라보니 그 말리 소리를 질르며 굽을 모아 오거늘 그제야 일변 반갑고 두려워 그 말을 탈시 입의 피가 무덧거늘 그제야 도적을 다 죽인 줄 알고 갖거하여 직축하여 가더니(22a~22b면)

17) <황현전>에서 용마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군이 다시 전장으로 나갔을 때 소상강을 지나다가 서해 용녀를 만나게 된다. 이때 서해 용녀는 소군에게 “천스금”과 “용총말”을 준다(35b면). 그러나 작품 전반에서 용총말의 활약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18) 김선풍, 『한국 민속 문학에 나타난 말』, 『제3회 국제아세아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아시아민속학회, 1999, 18면; 표인주, 『민속문학에 나타난 말의 의미』, 『한국의 마 민속』, 집문당, 1999, 74~76면.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소군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적으로 묘를 헤치고 ‘숨살리꽃’과 ‘뺨살리꽃’으로 황현의 목숨을 되살린다.

적시 선산의 울늑가 부인 묘호의 곡을 하고 낭군 묘호의 가 부작을  
벗치고 통곡하니 뇌성벽역이 진동하더니 분묘가 헛쳐지거늘 관을 열고  
보니 신체가 잔는 스랍 갖튼지라. 숨살리꽃 흐 송이을 가슴 우의 언저  
코 뺨살리꽃선 좌우의 눈코 보니 즈는 스랍갓치 싱존하거늘 미음과 환  
약을 갈러 입의 느흐니 환싱하거늘 교즈(轎子)의 피시고 집으로 로[도]  
라 오니 뒤 안이 칭찬홀리요? 낭지 낭군을 식로이 보고 반가함을 이  
지 못하며 질거함을 칭양치 못할너라.<sup>19)</sup>

주지하다시피 환생꽃 화소는 서사무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제주도 서사무가에는 서천꽃밭이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하는데, <이공본풀이>에는 다양한 꽃들의 구체적인 사용법이 서술된다. <이공본풀이>는 할락궁이가 어머니를 죽인 수명장자에게 복수를 하고 서천꽃밭의 꽃 감관으로 좌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그는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하여 서천꽃밭의 꽃을 이용한다.

(창) 설은 낭군님아, 나 살려줍서  
신산만산 할락궁이 곧는 말이  
우리 어멍 간 디 ㄱ르차주민  
살려나 주카. 들양간  
뚝박낭 아래 도외전  
왕대죽대 즈죽대에 맹구낭에  
뚝박낭 아래간에 목을 졸란 죽었구나  
(사설) 청대섭에 목을 졸란 죽여시난에, 어머님 슬은 석어 시내방천  
뒤퍼불고 빼만 실강하게 이십디다  
(창)뺨칼 들언 즈근즈근  
어머님 빼 열두빼 즈근즈근 놓아간다.

19) 45a~45b면.

피오를 꽃이영, 슬오를 꽃, 도환생꽃, 슬불일 빼도질 꽃<sup>20)</sup>

할락공이는 수명장자의 막내딸에게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곳을 묻고는 어머니의 뼈 위에 “피오를 꽃”, “슬오를 꽃”, “도환생꽃”, “슬불일 빼도질 꽃” 등을 올려놓는다. <이공본풀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사무가에서도 유사한 화소가 나타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자신이 죽인 정수남을 되살리기 위하여, <문전본풀이>의 일곱 아들은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온다. 제주도 무가에서만 이러한 화소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지역의 <바리공주>에도 습살리꽃, 뼈살리꽃, 살살리꽃 등이 나타나고 있다. <황현전>에 환생꽃 화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작품이 서사무가와 상상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황현전>에는 원혼설화, 상사뱀설화, 서사무가 등에서 보이는 화소가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소가 영웅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영웅의 한계를 노출하는 방향으로 서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화소의 삽입으로 인해 황현은 외적을 물리치는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영웅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남성영웅은 좌절된 영웅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여성영웅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설과 설화는 긴밀한 영향관계를 이루고 있다. 설화의 기술이 소설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설화의 향유자가 소설에서 취재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한다. 특히 고전소설은 문헌 설화나 다른 작품에서 취재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sup>21)</sup> <황현전>에도 설화나 무가 등 여러 서사 장르에 나타나

20)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256~257면.

21) 김현룡, 『고소설의 설화소재 수용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론총』, 태민국학연구원, 2008, 38면.



는 독특한 화소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흥미로운 구조물을 만들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황현전>의 화소가 역으로 구비문학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황현전>의 이본이 2종에 불과한 데다 모두 20세기 초반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황현전>에 나타난 설화 및 무가의 화소 수용은 전대소설의 서사구조를 유지하되, 전대소설과 차별화하고자 하였던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2) 여성영웅소설의 열녀복수서사 수용

<황현전>의 이소군은 여성영웅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남장’을 통해 남성의 세계에 진출하고,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출전’한다. 또한 복수를 위해 남자로 위장하고, 남성으로 오인 받아 여성과 정혼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남편을 구하는 소군의 행적은 여성영웅소설에 나오는 여성주인공의 행적에 대응된다.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의 비중·활약·위상 등에 따라서 여러 유형 분류가 이루어졌다. 양인실은 여성영웅과 남성영웅의 관계에 따라 여성영웅소설을 남성영웅 배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품, 남성영웅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품, 남성영웅보다 상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품으로 나누었다.<sup>22)</sup> <황현전>은 남성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으로 삼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모두 영웅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남성영웅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품과 흡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에서 여성영웅이 남복개착(男服改着)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남성영웅과 관련되어 있다. <이대봉전>에서 장애황은 정혼자의 집안이 간신의 모함으로 무너지고, 자신의 부모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경험한다. 이후 장애황은 복수를 위해 남복으로 개착하고 조정에 진출한

22) 양인실, 『한국 고대여성 영웅소설의 연구』, 『어문집』 11(1), 건국대학교, 1980, 79~82면.

다.<sup>23)</sup> <황현전>의 여성영웅이 남북으로 개착하는 계기도 남성영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남장의 계기가 남편의 전사(戰死)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황현의 유서를 받은 소군은 그의 죽음을 알고 복수를 다짐한다. 이후 그녀의 꿈에 황현이 나타나 자신의 백골을 수습해달라고 부탁한다.

각설, 소군이 통곡으로 세월을 보너며 부인의 계수를 극진이 밧들더니 일 "은 낭즈 스창 " 의지하엿더니 비몽간의 슬피 울며 낭즈의 손을 잡고 왈, "낭즈은 실름읍시 즈만 즈뇨? 슬푸다 철니 외의 귀신이 누을 위하여 이 지경의 이르러뇨? 낭즈은 이곳절 밧지 말고 느의 외로운 귀신을 위로하고 그취 읍신 빅골을 거두어 선산의 무더쥬시면 비록 귀신이라도 은혜는땅이라." 흐거늘 낭즈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낭군의 소미를 잡고 디성통곡하더니 우름소리의 썩다르니 요 " 흐 빈방 안의 혈 " 단신이 안젧시니 낭즈 정신이 아득하여 낭군을 디흔 듯 말을 하는 듯 겹히 안진 듯 정신을 슈습지 못하여 디성통곡 왈, "낭군은 웃지 이디 도록 무정하신잇가? 이제 낭군이 선산의 못치기을 원하읍시니 첩의 뜻도 디일 생각하 비라." 잇튼날 낭군의 " 복을 입고 횡장을 츠려 낭군의 말을 타고 서촉을 향할시<sup>24)</sup>

황현의 부탁을 들은 소군은 남편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서촉으로 향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선산에 안장하지만 이로써 남장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남북

23) 완판본 <이대봉전>에서 장애황은 겁탈의 위기를 맞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때 시비 난향이 부모와 낭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그녀를 말린다. "소제 디경질식왈 심야 삼경의 오기난 분명 혼사를 겁척코자 하미라. 이리 급박하니 장차 엿지 하리요 하며 수건으로 목를 밧여 자결코자 하거날 난향이 위로왈 소제난 잠간 진정하읍소서. 소제 만일 계양하야 죽을진디 부모와 낭군의 원수를 뒤라셔 감사오릿가. 소비 소제의 의복을 입고 안져닷가 소제 환을 감당하린니 급피 남북을 환척하시고 든장을 너머 환을 피하소서(김동욱 편, 『고소설 판각본 전집』 5, 나손서옥, 1975, 672면)."

24) 20b~21b면.

개착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부처 소군을 노오라 하여 보니 경상이 가련흔지라. “전일 왕씨부인의 은혜을 황현으로써 갑고져 하였더니 존장의 죽은 비 되었시니 도로혀 미안하거니와 모로미 너는 과히 슬허 말노. 예베타 운슈는 상식라 웃지 혐의하리요? 너을 청하기는 소원을 보고져 하미라. 낭군을 급피 보고져 하느냐? 철천지원을 갑고져 하느냐? 소원대로 직할거시니 이 두 가지 중의 정하라.” 하신디 낭즈 다시 일러 절하고 왈, “존명의 널부신 덕으로 감격한 말씀을 듯스오니 불쌍황공하와이다. 첩의 팔즈 불칙하여 시집 온 지 불과 반 년의 낭군을 이별하고 노모을 피시고 잇습더니 천운이 불행하와 부인이 별세하시니 하눌리 문허진 듯 더욱 망극하와 다만 낭군 오시기만 바라옵더니 천만 몽뎨 의외의 낭군이 존장의셔 죽스오니 더욱 답” 하와 모친 영위를 피시고 근” 보전하다가 낭군의 빅골이느 츠져다가 선산의 못고 일신을 맞치고져 하옵더니 하눌리 도오스 첩을 일리오 인도하시와 존명의 망극하온 말씀을 듯습고 낙” 하온 심스을 증치 못하오며 또 첩의 소원을 청하옵시니 알외옵거니와 스람이 세상의 츠하오미 본명의 죽어도 원통하거던 목숨을 남의 손의 끈치오니 일러 철천지원이 어디 잇시리잇가? 바라건디 첩의 용뎨을 빌니시면 비록 안 녀지느 장군의 원슈을 갑고 죽기을 천만 바라느니다.”<sup>25)</sup>

황현의 유골을 수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소군은 옥임산에서 부처를 알현한다. 부처는 그녀에게 소원을 묻는데, 소군은 철천지원(徹天之冤)을 갚고 싶다고 답한다. 결국 그녀는 부처의 도움을 받아 호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출전한다. 이처럼 소군이 남장을 하는 이유는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은 <황현전>이 수용하고 있는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동성혼약 화소를 살펴본다. 남편의 유골을 수습하러 가던 소군은 엄승상 태에서 말 도둑으로 몰린다. 그녀는 자신이 황현의 아들이라고 변명하여 말 도둑의 누명을 벗는다. 오해를 풀 엄승

25) 32a~33a면.

상은 소군을 사위로 맞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소군은 돌아오는 길에 엄소저와 혼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소군은 엄소저가 자신 때문에 수절(守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밤중에 몰래 내당으로 들어간다.

‘승상이 짓거 허락하였시니 만일 너의 츠신을 감추고 도라가면 반다 시 승상의 팔리 슈절할 거신이 이 옷지 남의 녀식을 고칭시기리요? 금야의 이러흔 사정을 알게 하고 갈리라.’ 하고 직시 문을 열고 너당에 들러갈시 잇디는 춘습월 망간이라. 월식은 만정하고 원갓 화초는 전후의 만발하고 향니 원근의 가득하였씨니 비록 일시 호화로움이 읍시니 그 경기를 구경할시 쳐량흔 심회 스스로 돕는지라. 월담하여 즈취읍시 드러가 보니 혼 낭즈 축발을 도두고 비단을 늦코 슈을 늦타가 밤이 깃푸 밍 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슈넛튼 오슬 물니치고 서안의 ”지하여 즈을 깃피 들릿거늘 낭지 가만이 드러가 슈넛튼 비단을 즈어 슈을 노호되, ‘진주 썩 황현의 실니부인 소군은 일편 슈을 노와 낭즈전의 올니는이다. 슬푸다 낭군의 빅골을 츠지러 가더니 승상의 관후하신 말씀이 날 갖튼 안너즈의게 결혼을 부퓌히읍시니 가련하고 미안호호는 승상게 허락하고 다시 낭즈게 본적을 알외는니 낭즈은 마음을 강잉하여 소군을 스모호쇼셔.’<sup>26)</sup>

내당으로 들어간 소군은 엄소저가 수를 놓던 비단에 수를 놓아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튿날 소군이 떠나고 비단을 발견한 엄소저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된다. 동성혼약은 여성영웅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화소이다. 여성주인공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성인물과 정혼하기도 하며, 남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기(知己)와의 혼인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작품과 달리 <황현전>에는 동성혼약이 등장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엄승상이 소군의 조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소군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혼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군은 혼인여부를 묻는 엄승상의 질문에 취쳐

26) 26a~26b면.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딸과 혼인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승낙한다.<sup>27)</sup>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따랐기 때문에 동성혼약 화소가 등장하였으나, 여성영웅에게 이미 남편이 있다는 설정으로 인하여 변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장의 계기는 여성주인공의 정체 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지녀는 “여성영웅소설의 주요한 소설적 긴장은 남자 행세를 하는 여성영웅의 정체가 언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sup>28)</sup>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황현전>에는 여성인물의 남장이 소설적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소군의 정체를 밝히려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그녀가 정체가 탄로날만한 위기에 처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인물이 소군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장면은 있다. 소군이 호녀·용녀와 전장에 나갔을 때 적장은 천문(天文)을 보고 그녀를 포함한 세 장수가 모두 여장(女將)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sup>29)</sup> 그러나 그가 남장한 여장수의 비밀을 이용할 계략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긴장이 유발되지 않는다. 또한 소군의 남장은 자기실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적장을 사로잡은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끝나게 된다.

---

27) 승상이 올히 여겨 외당의 늑과 낭즈더러 왈, “네 늑히 몇치며 쏘흔 취처(娶妻)을 흐엿는야?” 낭즈 답왈, “나는 늑히 십습 세요 분요(紛擾)흔 시절의 즈연 취처치 못흐엿는니다.” 흐디 승상이 왈, “진실노 취처치 못흐엿실진딘 노인에게 일녀 잇시되 그디는 늑의 말을 헛도히 아지 말고 금일의 서로 경혼흐미 엇더흐요?” 낭즈 답왈, “승상계읍셔 소싱 갖튼 비춘(卑賤)흔 인심을 거두어 실흐의 두고져 흐시니 슈화 중인덜 웃지 피흐리요만은 소즈는 이제 호강실어온 길리 안이오라 부친 빅골을 찾고져 흐여 불원철니(不遠千里)흐고 가읍더니 승상의 늑망(難忘)흐은 은혜을 입스오니 바라건디 길을 단여온 후의 승상의 명디로 흐오리다”(25b~26a면).

28) 최지녀, 앞의 논문, 56면.

29) 굴통이 그 아덜 습형제을 불너 왈, “이제 천괴을 보니 먼진 중의 여성(女星)이 빗취엿시니 분명한 여장수가 잇씨리라. 쏘 초성이 빗취엿시니 필련 활난이 잇실지라. 너희 등은 부디 조심하라(37b면).”

천주 올희 여기스 향셔을 밧고 호왕을 보늬고 쏜 굴통을 슈죄코져 호  
신디 소군이 알외되, “굴통의 죄는 만사무석이오니 소장을 톱기시면 스  
싱을 결단호도소이다.” 천지 허락호신디 소군이 물너늬와 남복을 벗고  
칼을 썩여들고 견우며 왈, “굴통아 네 늬을 아늬야? 늬는 네 살썩의 죽  
은 황현의 처 소군이라 직시 너을 죽일 거시로디 즈셔히 알고즈 호미  
라.” 직시 칼을 들고 굴통의 비을 헛치고 간을 너여 썩부며 왈, “평싱 낭  
군의 원슈을 갑고져 호엿더니 오날 ” 갑늬도다. 슬푸다 낭군의 혼썩이  
라도 즘간 와서 원슈의 간을 첩과 험가지로 동심호소서.” 호고 덕성통곡  
호니 그제야 군졸덜리 알고 천즈게 슈달호니 상이 그제야 부인 ” 줄 알  
고 칭춘호스 왈, “일런 부인은 만고의 읍도다.”<sup>30)</sup>

소군은 황제에게 굴통의 처분을 위임받는다. 그녀는 남복을 벗은 후  
굴통의 배를 칼로 갈라서 간을 내어 씹어 먹는다. 적대자가 등장하는 영  
웅소설에서 원수에 대한 징치는 가장 통쾌한 장면으로, 종종 원수의 간  
을 내어 씹어 먹는 장면이 등장한다.<sup>31)</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군의 정  
체가 밝혀지는 과정이다. 그녀의 정체는 군사들을 통하여 황제에게 알려  
지지만, 실상 소군이 자의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막사에서  
자발적으로 남복을 탈의하기 때문이다. 이후 소군은 바로 황현의 부인이  
라는 위치로 복귀하기 때문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

<황현전>에는 남편을 구하는 여성이 등장하지만 <홍계월전>처럼 남  
편을 구함으로써 그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홍계월전>에는 여성  
영웅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한 남편이 일으키는 갈등이 나타난다. 홍계월  
은 전장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남편이 자신에게 구원을 청하게 하여  
그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황제를 포함한 만인 앞에서 남편의 비굴한 모  
습을 드러내어 그의 완벽한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다.<sup>32)</sup> <황현전>의 이  
소군은 뛰어난 능력으로 남편을 구하지만 그녀의 능력을 남편이 시기하

30) 43b~44a면.

31) 김도환, 『<황운전>에 나타난 서사 관습의 변용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60, 동양고전학회, 2015, 50면.

32) 정병현, 앞의 논문, 412면.

는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소군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죽은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현전>에는 여성영웅이 등장하고 있으나 여성영웅소설의 지배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황현전>에는 여성영웅의 복수의지가 다른 작품보다 훨씬 강조되어 있다. 소군은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되자 수차례 복수를 다짐하고 복수를 완수하기 위하여 적장을 생포하려고 한다.

남지 팔십 근 장창을 들고 굴통의 말머리를 치니 말리 쯤의 업쓰러지  
는지라. 굴통이 놀스 말을 바리고 본진으로 닷거늘 남지 전일의 남군을  
죽인 살찌 세기를 넘어 우궁(右弓)의 매여 쏘니 굴통이 그 살찌를 밧다  
가 허늑을 밧쳐 밧지 못하여 왼편 눈이 만는지라. 놀스 손으로 눈을 부  
등키고 본진으로 도라가서 겨우 인스를 츠려 살을 츠서히 보니 전일 썩  
흠의 황현얼 죽인 살찌라. 굴통이 아덜 삼형제를 일시의 죽이고 썩 눈을  
마졌시니 분하고 절통함을 이기지 못하더라.

(중략)

잇디 용네 선봉더러 왈, “금일 썩흠의 옷지하야 살 세덕을 흔 시위의  
매여 썩더니 썩 철퇴로 굴통을 치지 안이하시고 옷지 말머리를 치시는  
잇가?” 남즈 대왈, “굴통의 지조는 죽히 살 두덕은 피할지라 이러무로  
말머리를 밧치기는 결단코 굴통을 스로잡고져 하미라.” 하며 서로 질기  
더라.<sup>33)</sup>

소군은 남편의 복수를 위하여 굴통에게 남편을 죽인 화살을 되돌려주  
고, 그를 생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철퇴로 말머리를 내리치는 치밀한 모  
습을 보인다. 이처럼 후반부의 서사를 추동하는 것은 죽은 남편의 원수  
를 갚으려는 여성영웅의 복수의지이다.

여성이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는 열녀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삼강행실

33) 39b~40b면.

도(三綱行實圖)』 등에서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다 목숨을 잃거나 남편을 죽인 도적을 잡아 관가에 고발하였다는 열녀의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18세기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의 <최홍이녀(崔洪二女)>,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의 <열녀임씨전(烈女林氏傳)> 등에서는 열녀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구비문학에서도 열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데, <첫날밤 신랑 모해 설화>는 첫날밤에 살해당한 남편의 복수를 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열녀담과 설화는 <장한절효기>, <조생원전>, <김씨열행록>, <장씨정렬록> 등의 소설로 재창작되기도 하였다.<sup>34)</sup> 특히 <김씨열행록>에서는 여성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남편을 죽인 범인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관가와 전장이라는 배경의 차이는 있으나 남장을 통해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는다는 점에서 <황현전>과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황현전>은 여성영웅소설과 서사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나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변용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영웅이 활약을 펼치는 이유가 열녀복수서사와 마찬가지로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성혼약, 정체탄로 등의 화소가 필연적 이유 없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장에서 활약하는 여성영웅을 그리고 있으나 여성영웅이 남편의 복수를 하려는 열녀(烈女)로 형상화되므로 여성영웅이라는 설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4. 결론

본고는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황현전>의 이본을 소개하고, 이 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전하는

34) 김희경, 『조선조 열녀소설 연구』, 경성대 박사논문, 2011, 86~117면 참조.



<황현전>의 이본은 아단문고본과 선문대본의 2종이다. 두 이본은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는 동일계열의 이본이지만 아단문고본이 국한문체로 필사된 데 반해 선문대본은 국문체로 필사되어 있다. 두 이본의 선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선문대본이 보다 전대의 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현전>은 황현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황현의 탄생과 결연, 전투에서의 활약, 전장에서 죽음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이소균이 남편의 백골을 수습하고 그의 복수를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모방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친연성을 보인다. 그러나 <황현전>은 전대의 영웅소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화소를 삽입하고 있는데, 그 예로 상사병에 걸린 남성의 저주로 죽게 되는 화소, 말이 주인의 무덤을 찾는 화소, 환생꽃 화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소는 남성영웅의 한계를 노출시켜 여성영웅의 등장을 예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독특적 화소를 삽입하여 흥미로운 구조물을 만들려고 했던 작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여성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전장을 누비는 여성영웅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나, 여성영웅소설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성혼약, 정체탄로 등의 화소가 필연적 이유 없이 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주인공이 죽은 남편의 복수를 하려는 열녀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열녀’라는 설정으로 인해 여성영웅소설의 문제의식이 희석되고 있다.

<황현전>은 정확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근대전환기 이후에 향유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다. 근대전환기 고전소설은 구활자본, 신문 및 잡지 연재소설, 필사본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향유되었다. 이처럼 소설 향유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전소설의 내용과 형식에는 변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sup>35)</sup> <황현전>은 전대의 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35) 김준형, 『근대 전환기 글쓰기의 변모와 구활자본 고전소설』, 『고전과해석』 1, 고

구조를 답습하고 있으나 독특한 화소를 삽입하고 열녀담을 수용함으로써 전대소설과 차별화하고 있다. 이는 소설 향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황현전>은 새로운 시도를 피하기를 했으나, 서사전개가 느슨해지고 문제의식이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전소설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실험적 작품으로, 변개되어 가는 여성영웅소설의 편린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선문대본 <황현전>

아단문고본 <황현전>

<이대봉전>(김동욱 편, 『고소설 판각본 전집』 5, 나손서옥, 1975)

<유충렬전>

<홍계월전>

강진옥, 『상사백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115~148면.

고은임, 『<황주문생록>의 서사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67, 한국문화회, 1994, 139~175면.

김선평, 『한국 민속 문학에 나타난 말』, 『제3회 국제아세아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9, 15~22면.

김도환, 『<황운전>에 나타난 서사 관습의 변용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60, 동양고전학회, 2015, 37~71면.

김준형, 『근대 전환기 글쓰기의 변모와 구활자본 고전소설』, 『고전과해석』 1,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 57~103면.

김택영, 김승룡 역주, 『송도인물지』, 현대실학사, 2000.

김현룡, 『고소설의 설화소재 수용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론총』, 태민국학연구원, 2008, 1~43면.

김희경, 『조선조 열녀소설 연구』, 경성대 박사논문, 2011, 1~201면.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면.

무라야마 지준, 김희경 역, 『조선의 귀신』, 동문선, 1990.

박선, 『황진이 설화의 전개와 소설적 변용』,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9, 1~145면.

- 박재연 주편, 『필사본 고어대사전』(전7책), 학고방, 2010.
- 서영숙, 「서사민요와 서사무가의 거리: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과 <치원대 양산복>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1, 1~22면.
- 아단문고 편, 『아단문고 장서목록』 Ⅱ, 아단문화기획실, 1996.
- 양인실, 「한국 고대여성 영웅소설의 연구」, 『어문집』 11(1), 건국대학교, 1980, 69~89면.
- 임동권, 『한국의 마 민속』, 집문당, 1999.
- 정병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일고: 심신우언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문화』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3~20면.
- 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389~416면.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면.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5, 1~169면.

<Abstract>

## A Study on Narrative Features of *Hwanghyeon-jeon*

Cho, Hae-jin · Park, Jae-yeon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about the Korean classical fiction, *Hwanghyeon-jeon*. The new version of *Hwanghyeon-jeon* was recently discovered from the collection of Sunmoon University. Although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narrative between the new version and the previous version possessed in Adanmoongo, *Hwanghyeo-jeon* in Sunmoon university was written in more previous writing system than that in Adanmoongo. The first half of the novel shows Hwanghyeon's life from his birth to his death in the war and the other contains Sogoon's revenge for her husband's murder.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fic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ventional heroic fiction and female heroic fiction. However, it gives variation in the details adopting motives from various folk tales and Seosamuga and showing features of stories of a virtuous woman.

Key Words : *Hwanghyeon-jeon*, heroic fiction, female heroic fiction, story of a virtuous woman, revenge story

■ 논문접수 : 2016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6년 4월 3일

■ 게재확정 : 2016년 4월 21일

